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및 관련변수 연구

Role Strain Coping Behaviors and Associated Variables among Non-professional Working Mothers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조 은 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옥 선 화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Cho, Eun Suk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Ok, Sun Wha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ping behaviors of non-professional working mothers and find out the individual and situational factors which affect the degree of coping behaviors. For this research, the working mothers in non-professional job with children under age 18 answere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coping behaviors was rather high in multiple role management strategies, strengthening family system and positive thinking, but rather low in housework socialization and role reduction/standard adjustment. Second, the effect of associated variabl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categories of coping behaviors.

So we conclude that, the coping behaviors of the non-professional working mother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professional working mothers in some aspects, although they have much similarities. The different aspects were 1) The relationship of family income and the degree of housework socialization was more evident. 2) The work-related variables did not affect the coping process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conservative sex-role attitude of them. Second, non-professional working mothers should use coping behaviors such as housework socialization, role reduction/standard adjustment more for the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role strain. Third, the attitude of occupational and parental rol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using the role strain coping behaviors. And such an unconscious use of the coping behavior won't be helpful in the feeling of control over environment including role strain and active coping of working mothers.

I. 문제 제기

생활비의 상승이나 고용불안과 같은 일련의 사회 변화는 여성의 자의식 상승과 더불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율 증가는 이들의 역할긴장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역할긴장은 부부취업 가족들에게 일반적인 스트레스로 여겨지게 되었다. 역할긴장은 여성자신의 결혼만족과 직업만족(Aryee, 1992)·생활만족(김영희, 1992)·신체적·심리적 증상(이연숙 외, 199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여성개인과 그가 속한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족체계와 여성개인에게 미치는 역할긴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체로 취업여성의 역할긴장이나 대처행동연구는 직업지위별로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나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취업여성들의 직업지위가 취업동기, 개인 및 가족자원·작업환경·가치관·계층 등의 다면적인 차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지위별 대처행동 연구는 주로 전문직 취업여성을 대상(이기영·구혜령, 1992; 장운옥, 1994; 전영자, 1991)으로 하였으며, 비전문직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비전문직 여성들은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근대적인 성역할규범 등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원이 전문직에 비해 취약하므로 대처행동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전문직여성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크지만(고은숙·김명자, 1993) 대처행동 정도는 더 낮아(제미경·박명희, 1993) 이들의 역할긴장과 대처행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녀출산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전문직종에 취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전문직 취업여성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한편, 대처행동이 취해지는 개인적·상황적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처행동의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처행동에 관련된 개인적·상황적특성은 대처행동의 선택과, 선택된 대처행동의 대처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스트레스과정 모델(Boss, 1987; Lazarus & Folkman, 1984; McCubbin & Patterson, 1983)을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에 적용하여 볼 때, 스트레스인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은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과 직장의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대처행동 연구에서 규명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첫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막내자녀의 고교졸업까지의 시기에 속한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실태와 이에 관련되는 변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역할긴장을 취업모가 경험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보고, 이에 대한 대처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과정으로 보고있다. 먼저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스트레스 과정이론들을 살펴본 후, 대처행동의 하위영역에 대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비전문직 취업여성들의 대처행동특성을 전문직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스트레스 과정모델들

대처행동의 사용과 대처효율성에 개인적·상황적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되어왔다(Burr & Klein et al., 1994:148; Lazarus & Folkman, 1984; McCubbin & Patterson, 1983; Moos & Schaefer, 1993; Parkes, 1986).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대처행동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개인적·상황적 맥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대처행동이 보다 효과적인 대처행동이 되도록 촉진하는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 개인의 대처행동의 사용이 고정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개인적·상황적 변수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가정하는데서 비롯한다.

대처행동 연구의 이론적 틀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의 역동적 과정모델(Lazarus & Folkman, 1984)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정은 환경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스트레스상황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 모델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거쳐 대처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가진다.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은 대처행동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자원으로 기능하는데, 대처행동의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체계의 적응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인 二重ABCX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에서도 대처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상황적 요인의 중요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이전의 스트레스과정을 거치면서 확장된 가족의 적응자원(bB요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족의 적응자원에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특성과 가족체계의 특성이 포함된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개인과 가족적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二重ABCX모델을 이 연구에 적용하면, 스트레스(aA요인)는 역할긴장이라는 만성적 현상이며, 가족의 자원(bB요인)은 취업모 개인 및 가족적 특성변수가, 의미인식(cC요인)은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이 대입될 수 있다.

생태학적인 환경개념과 ABCX모델(Hill, 1958)을

결합시킨 '가족스트레스의 맥락적 모델'(Boss, 1987)에서는 스트레스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는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의미인식(C요인)'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Boss(1987)의 모델은 지금까지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진 환경요인이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二重ABCX 모델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이 모델에서의 C요인은 대처행동이 대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모델에서는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므로, 가족외적인 변수인 직업관련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는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가족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대처행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에 관련되는 변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대처행동의 개념과 하위영역

1) 대처행동의 개념 및 측정방법

대처행동의 정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Lazarus와 Folkman(1984: 141)은 대처란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선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외적·내적요구를 관리하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처행동이 개인의 특성이나 양식화된 행동이라기 보다는 상황과 개인 간의 함수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Pearlin과 Schooler(1978)는 '대처란 문제가 되는 사회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동이며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력을 중재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들은 대처를 낳는 스트레스의 근원을 주로 사회적 것에서 찾고 있다. 대처가 개인에 국한되는 행동이 아닌 가족체계의 과정이라고 보는 McCubbin 등(1980)은, 대처행동이 '가족체계의 균형추구 과

정'이라고 보고, 가족의 대처행동은 '한 시점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과정을 가진다'고 하였다.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다양한 행동목록들로 구성된 표준화된 대처행동 척도들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Haan, 1993; Moos & Schaefer, 1993). 일반적으로 대처행동의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응답자가 자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스트레스의 종류를 응답지에 표하도록 한 후, 그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이 주로 하는 대처행동을 답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정방식은 같은 개인이라도 스트레스의 성격에 따라 주로 취하는 대처행동이 다르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대처행동 척도들은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에 모두 적용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문항수가 비교적 많고, 문항내용이 보다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대처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보다는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보다 구체화시킨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의 하위영역¹⁾

이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선행연구의 경향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처행동 하위영역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하위영역은 다중역할 관리행동,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 가족체계 강화행동, 가사노동 사회화행동, 긍정적 관점유지행동이다. 다중역할 관리행동은 Bird 등(1983)의 견해를,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은 Hall(1972)의 견해를, 가족체계 강화행동은 Skinner와 McCubbin(1982)의 견해를 수용하였고, 가사노동 사회화행동과 긍정적 관점유지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볼 때, 역할긴장의 감소에 중요한 대처행동으로 판단되어 대처행동 하위영역에 포함시켰다.

3.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과 대처행동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전문직과 비전문직²⁾ 여성들은 역할긴장이나 대처행동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이들은 교육수준이나 성역할관념·취업동기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전문직 취업여성들은 비전문직에 비해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성역할관념에서 평등성 이념이 강하다. 따라서 전문직 취업여성들은 비전문직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의 공평성 문제를 더 중시한다(Perry-Jenkins & Folk, 1994). 그러나 이들은 가족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자신의 취업으로 인한 가족역할의 소홀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Mortimer & London, 1984).

반면 비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므로 전문직 여성과 같은 죄책감은 적다. 그러나 성역할관념이 전통적이며, 취업여성의 역할과중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혹은 인적자원의 부족³⁾으로 가사와 육아부담이 커서 이것이 표면화된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유가호 외, 1992; Mortimer & London, 1984).

직업과 가족역할이라는 다중역할에 임하는 자שה나 그로 인한 역할긴장에서도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여성들은 차이가 있다. 전문직 여성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모두를 잘 수행해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두가지 역할 모두에서 높은 역할중요도를 가졌을 때 역할긴장이 낮아졌다(O'Neil & Greenberger, 1994). 이는 여러 역할 모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의 균형' 상태가 역할긴장이나 우울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인다는 Marks(1977)의 논의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대처행동에 있어서도 다중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처행동은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역할자체를 줄이는 역할감소나 표준조절과

1) 대처행동 하위영역 선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조은숙(1997)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전문직에는 전문직과 관리직이, 비전문직에는 전문직을 제외한 단순 사무직과 생산직,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등이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3) 가사나 육아에 조모 등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전문직이거나 중위직일 경우가 하위직에 비해 더 많다(이승미·이기영, 1990; 조병은·신화용, 1991).

같은 대처행동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이기영·구혜령, 1992; Bird et al., 1983).

반면 비전문직 여성의 경우 직업에 대한 중요도가 낮고 가족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사람이 역할긴장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다(O'Neil & Greenberger, 1994). 이들의 경우는, 시간과 에너지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다중역할의 부담은 역할긴장을 낮게 된다는 Goode(1960)의 가설에 부합한다. 이들은 일의 성격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직업과 가족생활 간의 구획화행동⁴⁾을 통해 역할긴장에 대처하는 것이 전문직에 비해 용이하다. 그리고 직업과 가족역할 모두를 잘해내야 한다는 의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역할의 표준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거나 부가적인 책임을 거부하는 대처행동을 전문직 취업모에 비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ird et al., 1983). 그러나 비전문직 취업모는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의 전반적인 사용정도가 전문직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정숙·이정우, 1995; 제미경·박명희, 1993). 심지어는 전문직 여성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표준조절 대처행동의 경우도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여성의 사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이정우, 1995).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모는 역할긴장과 이에 대한 대처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대처행동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이 전문직여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비전문직 취업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역할긴장과 대처행동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취업여성은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을 어느 정도 끝낸 주부들이 재취업하게 되는 직종은 비전문직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의 취업은 가정의 경제적 필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 비전문직 취업여성들은 전문직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근대적인 성역할규범 등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원이 취약하므로 대처행동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

성이 있으며 전문직 여성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크다(고은숙·김명자, 1993). 그러나 앞의 연구결과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대처행동정도는 전문직에 비해 더 낮다(제미경·박명희, 1993). 비전문직 취업모들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자녀양육기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 및 그에 대한 대처행동의 하위영역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특성변수(직업역할중요도·부모역할중요도·취업모의 연령·신체적 건강정도)·가족관련변수(남편의 협조도·가계소득수준·모동거여부·영아유무)·직업관련변수(업무의 양적부담도·업무의 질적부담도·근무시간의 융통성) 및 역할긴장이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처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어떠한가?

2. 변수의 정의

1) 대처행동

이 연구는 모두 5개의 대처행동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각 대처행동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compartmentalization'

① 다중역할 관리행동

다중역할관리행동은 우선순위설정·계획하기·직장일과 가족일의 구획화·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기·열심히 일하기 등과 같이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최대의 역할수행을 피하고자하는 관리행동이다.

②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더 이상의 역할수행을 거절하거나, 적절한 선에서 역할의 표준을 조절하여 역할을 줄이는 행동이다.

③ 가족체계 강화행동

가족체계 강화행동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가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역할관계를 조정하는 등, 부부취업가족으로서의 가족체계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처행동이다.

④ 가사노동 사회화행동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역할과중을 줄이는 방법이다.

⑤ 긍정적 관점유지행동

긍정적 관점유지행동은 취업모가 자신의 취업이 갖는 긍정적인 면에 치중하여 상황을 재해석함으로써 역할긴장이 대처하는 방법이다.

2) 역할긴장

Small과 Riley(1990)의 정의를 수용하여, 역할긴장이란 여성이 직업과 가족역할이라는 두가지의 역할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 심리적인 면에서의 갈등상태라고 정의한다.

3) 관련변수

(1) 개인특성변수

① 직업역할중요도

Amatea 등(1986)의 견해에 따라 역할중요도란 개인이 자기가 가진 여러 역할 각각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이라고 정의한다. 직업역할중요도는

직업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 역할에 헌신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② 부모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는 Amatea 등(1986)의 견해에 따라, 부모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 역할에 헌신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③ 신체적 건강정도

신체적 건강정도란 취업여성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체력이 강한 정도를 일컫는 개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가족관련변수

① 남편의 협조도

남편의 협조도는 도구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으로 나뉘는 개념이다. 도구적인 협조도란 남편이 취업모의 가사나 양육을 얼마나 도와주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정서적인 협조도란 남편이 부인의 취업에 대해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지적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② 母同居與否

母同居與否란 취업모가 親母 혹은 嫗母와 동거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 개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③ 영아유무

영아유무란 취업모의 자녀 중 만3세 미만의 영아⁵⁾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3) 직업관련변수

① 업무의 양적부담도

업무의 양적부담도는 근로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역할을 부여

5) 인간발달론에서는 아동의 발달시기를 일반적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등으로 구분하는데, 영아기는 만2세까지(만3세 미만), 유아기는 만3세부터로 나누고 있어(유안진, 1987) 이 연구에서도 이와같은 기준을 따랐다.

하는 量的過負荷(이종목, 1989:72; Pearlin & Schooler, 1978; Voydanoff, 1988)와 근무시간정도가 합해진 개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② 업무의 질적부담도

업무의 질적부담도는 근로자가 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식·능력 및 자격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업무의 내용적인 면의 부담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이종목, 1989: 72).

③ 근무시간의 융통성

근무시간의 융통성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IV.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질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려고 한다.

1. 조사대상자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에 초점을 둔 이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역할긴장이 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인 첫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막내자녀의 중고등학교 교육기까지(장윤옥, 1994) 시기의 비전문직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비전문직 취업여성으로서 막내자녀가 고등학교 연령 이하(만18세 이하)에 속하는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비전문직 취업자들은 단순사무직·생산직·기술직·노무직·영업직·자영업·서비스직·비공식부문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 자료수집방법

예비조사는 서울시내 각급학교를 통해 취업한 학부모들의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1996년 2월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72부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지의 척도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의표집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전문직을 포함한 전직종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비전문직 취업모 537명의 자료만 분석되었다.

3. 측정도구의 구성

1) 대처행동

선행연구들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대처행동 척도들(Bird et al., 1983; Chung, 1988; Skinner & McCubbin, 1982)에서 하위영역별로 대처행동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4인의 논문지도위원과 가족학전공 박사과정 수료자들을 통해 검증받았으며, 재조사법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⁶⁾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영역별 문항구성능을 재조정하였다. 각 대처행동별로그 행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5점 리커트척도에 표하도록 하였다. 재조사를 통한 척도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본 대처행동척도의 신뢰도값은 각 하위영역별로 .74에서 .90까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표 1>참고).

2)역할긴장 및 관련변수

역할긴장과 관련변수의 척도구성방법은 <표 2>에

<표 1> 대처행동척도의 점수범위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점수범위	재조사 신뢰도계수
다중역할관리행동	6문항	6-30	.73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	10문항	10-50	.64
가족체계강화행동	6문항	6-30	.75
가사노동 사회화행동	5문항	5-25	.82
긍정적 관점유지행동	5문항	5-25	.70

6) 재조사는 1996년 3월에 2주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50명의 비전문직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46쌍의 자료가 재조사 신뢰도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표 2〉 역할긴장 및 관련변수척도의 척도구성방법 및 신뢰도 계수

척도	구성방법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계수
역할긴장	Small & Reily(1990)의 척도	9문항	9-45점	.87
직업역할중요도	Amatea 등(1986) 척도 중 문항선정	4문항	4-20점	.75
부모역할중요도	Amatea 등(1986) 척도 중 문항선정	4문항	4-20점	.75
신체적 건강정도	연구자가 구성	5문항	4-20점	.77
남편의 협조도	이미숙(1995), Shuster(1993)참고	6문항	6-30점	.74
업무의 양적부담도	업무압박척도(McDermid et al., 1994: Pearlin & Schooler, 1978참고)와 주당근무시간(단위:10시간)을 더한값을 업무의 양적부담도로 측정	업무압박척도 3문항	3-15점	.75
업무의 질적부담도	조은숙·옥선화(1990), Pearlin & Schooler(1978) 척도 참고	3문항	3-15점	.65
근무시간의 융통성	이기영·구혜령(1992), Sears & Galambos(1992) 척도 참고	3문항	3-15점	.73

제시되어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비전문직 취업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취업자들의 연령은 주로 30-40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영아양육을 하고있는 취업자는 10.7%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62.4%로 가장 많으며, 가계소득은 1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노모와 동거하며 양육과 가사에서 도움을 받는 취업자의 비율은 20.4%였으며 취업자들의 자녀수는 2명 이하인 경우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사무직과 생산직, 자영업 등의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볼 때 하루 12시간정도를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전문직 취업자의 역할긴장 및 대처행동 실태

먼저 비전문직 취업자들의 역할긴장실태를 〈표 3〉을 참고로 하여 보고자 한다. 하위영역별 역할긴장정도를 비교해보면 부모역할/직업역할간 역할긴장이 가장 긴장수준이 높았으며 배우자역할/직업역할간 역할긴장이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녀양육기 취업모들이며, 어머니역할로 인한 역할긴장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윤미립·이기영, 1995)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비전문직 취업자들의 대처행동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4〉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별 비교를 위해 척도점수를 100점 만점기준의 환산점수로 변환하였다.

다중역할 관리행동의 사용정도는 74.5점으로 상당

〈표 3〉 비전문직 취업자의 역할긴장 실태

(n=537)

역할긴장의 하위영역	문항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역할/직업역할간	3문항	3-15점	8.87	2.80
부모역할/직업역할간	3문항	3-15점	10.02	2.57
가사역할/직업역할간	3문항	3-15점	9.38	2.61
총 역할긴장	9문항	9-45점	28.28	6.67

〈표 4〉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실태

(n=537)

척도	문항수	점수범위	평균 (환산점수*)	표준편차
다중역할관리행동	6문항	6-30	74.5	42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	10문항	10-50	56.2	5.3
가족체계강화행동	6문항	6-30	68.1	3.8
가사노동 사회화행동	5문항	5-25	52.6	3.4
긍정적 관점유지행동	5문항	5-25	65.4	3.6

* : 환산점수는 척도점수의 만점값인 25, 30, 50 등의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하위영역간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든 점수이다.

히 높은 사용정도를 보였다. 다중역할 관리행동은 취업여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처행동(윤미림·이기영, 1995; 이정숙·이정우, 1995; 채옥희, 1995; 한경미, 1993)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비전문직 취업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은 대처행동의 사용정도는 56.2점으로 사용정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윤미림·이기영, 1995; 이기영·구혜령, 1992; 이정숙·이정우, 1995; 전영자, 1991; Elman & Gilbert, 1984; Gilbert & Holahan, 1982; Hall, 1972)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비전문직 취업여성들의 역할감소나 표준조절행동은 전문직 여성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ird et al, 1983). 그 이유로는 단순한 일의 성격, 완벽주의를 보다 덜 지향한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가족체계 강화행동의 사용정도는 68.1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부부취업이라는 상황에 대해 가족원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생활양식이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노동 사회화는 사용정도가 52.6점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금전적 자원과 관계되는 문제로 보인다.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취업동기는 전문직에 비해 경제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이들은 취업으로 인한 역할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전적 지출을 증가시키는 대처행동을 쉽게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긍정적 관점유지 대처행동의 사용정도는 65.4점으

로 비교적 높은 사용정도를 보였다. 전문직 뿐 아니라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경우도 직업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역할긴장을 극복하는 대처행동을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전문직 취업모들은 다중역할 관리행동과 가족체계 강화행동, 긍정적 관점유지행동 등을 비교적 자주 사용하였지만,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이나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역할긴장문제를 '시간과 에너지의 희소성관점(Goode, 1960)'에서 볼 경우, 취업모가 맡은 역할의 실질적인 감소를 추구하는 대처행동이라는 점에서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과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의 중요성은 커진다.

3.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 관련변수

1) 다중역할 관리행동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다중역할관리행동에는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에 대한 중요도의 영향($\beta=0.23$)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표 5〉 참고). 취업여성인 부모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모두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 경우, 한정된 시간에 두가지 역할을 모두 완수하기 위해 다중역할 관리행동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Elman & Gilbert, 1984)와 유사하다. 즉, 두가지 역할 모두에서 성공을 원하는 경향이 취업모들의 보다 조직적인 역할수행을 촉진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표 5〉 대처행동의 하위영역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관련변수	다중역할 관리행동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	가족체계 강화행동	가사노동 사회화행동	긍정적관점 유지행동	전체 대처행동
직업역할중요도	.23***	.00	.06	.08	.48***	.29***
부모역할중요도	.23***	.04	.20***	-.06	-.04	.07
취업모연령	.02	-.07	-.00	-.14**	-.09*	-.12**
신체적건강정도	.06	-.04	.01	-.07	.05	-.03
남편협조도	-.02	.07	.29***	.08	.13***	.13**
가계소득	.01	.06	-.01	.24***	.07	.14***
모동거여부 ^a	.05	.01	.01	.04	.12**	.06
영아유무 ^b	.03	-.03	.02	-.01	-.06	-.03
업무의 양적부담	.03	-.08	-.04	-.11*	-.07	-.04
업무의 질적부담	-.04	.03	-.04	.11*	.03	.03
근무시간충통성	.05	.07	.05	.01	.02	.06
역할긴장	.03	.22***	-.14**	.19***	-.06	.03
R ²	.16	.06	.22	.15	.30	.15

* < .05 * < .01 *** < .001

a: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1,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b: 영아가 있는 경우를 1, 영아가 없는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는 것이다.

2)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정도는 역할긴장수준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beta = .22$)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처행동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요구되는 부가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가족이나 직업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표준도 낮춤으로써 역할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 대처행동은 역할관계에 있는 타인과의 타협이 필요한 대처행동이므로, 취업여성이 역할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사가 분명해야 취해질 수 있다.

이 대처행동의 사용정도에 개인, 가족, 직업적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할긴장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윤미림·이기영, 1995; 이정숙·이정우, 1995; Chung, 1988; Guelzow et al., 1991)는, 이 대처행동이 역할긴장이 높아 취업모가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역할긴장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족체계 강화행동

가족체계 강화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협조도($\beta = .29$)와 부모역할중요도($\beta = .20$)였다. 또 역할긴장은 가족체계 강화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영향($\beta = -.1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부인 취업에 대한 협조정도는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증진이나 가족원들의 역할조정, 가족들의 모임시간의 마련과 같은 가족체계 강화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부모역할을 중시하여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자 하는 취업모는 가족원들과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을 증진시킬 기회를 마련하는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역할긴장이 높은 취업모는 가족체계 강화행동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행동의 사용정도에 역할긴장이 부적인 영향을 미친 하위영역은 가족체계 강화행동 뿐이다. 이는 이 대처행동

이 다른 대처행동에 비해 취업모의 신체적·정신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4) 가사노동 사회화행동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은 가계소득($\beta=24$), 취업모의 연령($\beta=-.14$)과 업무의 양적($\beta=-.11$), 질적부담($\beta=.11$), 역할긴장수준($\beta=.19$)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이 가계소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이기영, 1989; 이승미·이기영, 1990; 이정숙·이정우, 1995; 제미경·박명희, 1993)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가사노동 사회화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정우·이은주, 1992; 임혜경·임정빈, 1995)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대처행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에는 역할긴장의 수준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임혜경·임정빈, 1995)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실질적인 역할감소효과가 있는 대처행동이지만 사용정도가 낮았던 역할감소와 표준조절행동과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은 공통적으로 그 대처행동의 사용에 역할긴장수준이 높은 힘든 상황이 전제되고 있었다.

취업모의 연령은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의 사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나 막내자녀의 연령이 가사노동 사회화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이기영, 1987; 이정우·이미선, 1995)와 일치한다. 그러나 연령과 가사노동사회화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문숙재·정지영, 1991; 이정우·이은주, 1992)도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두가지 효과가 상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된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는 그리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연령과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의 부적인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령이 낮

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이 증가하는 결과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경험이나 의식에서 나타나는 코호트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여성의 업무부담정도와 가사노동 사회화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비전문직 취업모의 업무의 질적부담은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의 사용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업무의 양적부담은 대처행동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두변수가 대처행동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부담 자체보다는 취업모의 직종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업무의 양적부담이 적은 직종과 업무의 질적부담이 큰 직종⁷⁾에 속한 취업모들이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진 직종에 종사하는 취업모에 비해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을 많이 하는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확대가족형태일 경우 가사노동 사회화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이기영, 1987; 이정우·이은주, 1992)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전문직 취업모의 경우 확대가족일 때 가사노동 사회화정도가 줄어들었다(이기영, 1987)는 결과는, 전문직의 경우는 노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동거노모의 가사조력 부분을 가사노동 사회화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전문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비전문직 취업모의 경우 노모가 동거하지 않을 때, 동거노모가 도와주는 만큼의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사회화로 대체하기 보다는 자신의 역할증대를 통해 감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7) 업무의 양적부담이 많은 직종은 생산직, 기술직, 서비스직, 자영업 등이며, 업무의 질적부담은 영업직에서 가장 높았다.

5) 긍정적 관점유지행동

긍정적 관점유지행동에는 직업역할중요도의 영향($\beta=.48$)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그외에 남편협조도($\beta=.13$), 모동거여부($\beta=.12$) 그리고 연령($\beta=-.09$)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역할중요도는 긍정적 관점유지 대처행동의 정도에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직 취업모는 전문직에 비해 경제적 동기에 의해 취업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들에게도 직업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역할긴장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협조도도 긍정적 관점유지 행동의 사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협조정도는 취업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한 긴장에 실제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여 역할긴장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Perry-Jenkins & Folk, 1994; Vannoy & Philliber, 1992).

취업모와 동거하는 노모는 가사나 육아를 도와줌으로써 취업모의 과중한 역할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동거 자체를 비용으로 지각하는 경향(조병은·신화용, 1991)과, 동거노모들이 상위세대 가족원이므로 이들의 의사가 가족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족주의적 규범(옥선화, 1989)으로 인해 취업모에게 또다른 긴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노모가 동거할 때 노모의 조력으로 인해 생긴 여유는 자신의 취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인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비전문직 취업모의 긍정적 관점유지에 있어서는 동거노모로 인해 얻는 보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은 긍정적 관점유지 대처행동의 사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의 취업모는 자녀양육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역할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 자녀양육의 부담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긍정적 관점유지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여

성의 취업이 가족원과 가계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젊은 취업모에게서 보다 분명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VI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대처행동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역할긴장과 관련된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생활주기 중 부모역할부담이 큰 자녀양육기에 속하는 비전문직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처행동특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던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대처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취업모들은 비전문직종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들은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대처행동 실태와 관련요인들을 어느 정도 밝혔다는데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특성과 이들의 대처행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 두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문직 취업모는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에 있어서 전문직 취업모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부분이 많았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이들의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에 가계소득의 영향을 뚜렷이 받고있다는 점이다. 전문직 취업모의 경우 일정소득수준 이상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지만(이정우·이은주, 1992; 임혜경·임정빈, 1995),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비전문직 취업모의 경우는 소득의 증가가 가사노동 사회화행동과 분명한 직선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비전문직 취업모는 가계소득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 특성은 업무의 양적인 부담이나 질적인 부담정도,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같은 직업관련변수들이 대처행동의 사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 혹은 전직종의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과는 상이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긴 근무시간이나 이로 인한 시간압박이 역할감소(장윤옥, 1995)와 표준조절행동(이승미·이기영, 1990; Chung, 1988) 그리고 다중역할 관리행동(장윤옥, 1995; 홍성희, 1994)의 사용을 증가시키며 긍정적 관점유지 행동을 감소(장윤옥, 1995; Guelzow et al, 1991)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표준조절행동(윤미림·이기영, 1995),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임혜경·임정빈, 1995) 그리고 긍정적 관점유지행동(윤미림·이기영, 1995; Guelzow et al, 1991)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경우 이와같은 변수들이 대처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직업적 조건들에 의해 대처행동의 사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와 같은 결과는 비전문직 취업모들이 가정과 직업생활을 병행해나가는 기본적인 자세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전문직 여성들에 비해 보수적인 이들의 성역할 태도(유가효 외, 1992; Perry-Jenkins & Folk, 1994)는 자신의 일이 가족의 경제적 필요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적 요구를 가족생활의 중심적인 위치에 두고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비전문직 취업모들은 직업역할에 대해 그것은 자신이 주부로서의 역할에 더해서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일 뿐, 이로 인해 자신의 관점이나 역할수행방식 혹은 가족원의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이 전문직 취업모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첫째는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대처행동에도 직업역할 중요도의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직업역할 중요도는 전문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Elman & Gilbert, 1984)에서 그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볼 때 비

전문직 취업모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남편의 협조도가 취업모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모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비전문직 취업모들과 전문직 취업모가 대처행동의 전반적인 사용경향에서 유사하다는 점이다. 비전문직 취업모는 전문직에 비해 전반적인 대처행동의 사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숙·이정우, 1995; 제미경·박명희, 1993). 그러나 다중역할 관리행동이나 가족체계 강화행동, 긍정적 관점유지행동 등을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이나 가사노동 사회화행동 보다 더 빈번히 사용하는 대체적인 경향은 전문직 취업모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의 개선방향을 두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양육부담이 많은 비전문직 취업모들이 역할긴장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처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특히 가사노동 사회화와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행동이나 가사노동 사회화행동은, 다중역할을 자신이 혼자 감당하려 하지않고 누군가의 양해 혹은 도움을 받아 감소시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또 이 두가지 대처행동은 역할긴장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행동이었다. 즉 그 대처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취해지는 대처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화과정은 사회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기 보다는 이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자세는 이들이 역할긴장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역할긴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역할감소 및 표준조절과 가사노동 사회화 등의 대처행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취업여성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비전문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과중한 역할의 감소를 위한 역할분담과 불요불급한 역할에 대한 포기 및 표준

조절, 가사노동 사회화의 필요성 등 역할긴장이 취업모 개인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취업모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보다 적은 비용을 통해 구매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직업역할과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정립은 이들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직업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취업모일수록 다중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직업역할중요도는 자신의 직업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역할긴장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비전문직 여성들은 전문직 여성에 비해 경제적 동기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자부심은 전문직 여성 뿐 아니라 비전문직 여성의 역할긴장 대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역할중요도가 높은 취업모는 취업한 상황에서도 부모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중역할 관리행동과 가족체계 강화행동을 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직업역할중요도와 부모역할중요도 간에는 중간정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⁸⁾이 있었는데, 이는 직업역할중요도가 높은 여성들이 부모역할중요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업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가정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사회통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가지 역할 모두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취업모들은 역할긴장에 대처하기 위해 대처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비전문직 취업모들이 자신의 직업과 가족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은 역할긴장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인, 가족, 직업적 조건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대처행동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복지시설이나 정책의

구비정도와 같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환경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기 취업모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대처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장운옥, 1991; 채옥희, 1995; Cogle & Tasker, 1982; Schmittger & Bird, 1990)에서는 자녀양육기 내에서도 가족생활주기별로 대처행동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처행동의 가족생활주기별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 나타난 비전문직 취업모의 대처행동들은 전문직 혹은 전직종의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검토되었다. 그러나 비전문직 취업모들의 대처행동 특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모의 비교를 위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 1) 고은숙·김명자 (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2) 김영희 (1992).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0(2), 139-158.
- 3) 문숙재·정지영 (1991).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31-152.
- 4) 옥선화 (1989). 현대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 (1992).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0(1), 283-309
- 6) 윤미림·이기영 (1995). 취업주부의 자녀교육과

8) 직업역할중요도와 부모역할중요도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40($p<.001$)이었다.

- 관련된 역할갈등과 이에 대한 관리 전략. *생활과 학연구* 20,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11-20.
- 7) 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이기영 · 구혜령 (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갈등대처 전략. *가정관리학회지* 10(2), 한국가정관리학회, 99-112.
- 9) 이미숙 (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이승미 · 이기영 (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계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29-142.
- 11) 이연숙 · 이순형 · 유가효 · 조재순 (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12) 이정우 · 이미선 (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가사 노동수행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1-14.
- 13) 이정우 · 이은주 (1992).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0(1), 1-20.
- 14) 이종목 (1989).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성원사.
- 15) 임혜경 · 임정빈 (1995).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 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 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5.
- 16) 장윤옥 (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계약지각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75-186.
- 17) _____ (199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계약지각이 시간계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65-179.
- 18) 전영자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19) 제미경 · 박명희 (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13.
- 20) 조병은 · 신화웅 (1991). 맞벌이가족의 성인자녀 노부모관계. *현대사회와 가족문제-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 한국 가족학 연구회 주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03-130.
- 21) 조은숙 · 옥선화 (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생활과학연구* 15,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49-63.
- 22) 채옥희 (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8-98.
- 23) 한경미 (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변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83-95.
- 24) 홍성희 (1994). 주부의 시간계획 및 관리전략에 따른 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47-58.
- 25) Amatea, E., Cross, E., Clark, J. & Bobby, C. (1986). Assessing the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areer Oriented Men and Women: The Life Role Salience Sca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4), 831-838.
- 26) Aryee, S.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Among Married Professional Women: Evidence from Singapore. *Human Relations* 45, 813-837.
- 27) Bird, G., Bird, G. & Scruggs, M. (1983). Role-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Husbands and Wives in Two 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1), 63-70.
- 28) Boss, P. (1987). Family and Stress. In M. Sussman & S.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695-723). N.Y.: Plenum Press.
- 29) Burr, W. & Klein, S. (1994). *Reexamining Family Stres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30) Chung, Y. L. (1988).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

- 31) Elman, M. & Gilbert, L. (1984). Coping Strategies for Role Conflict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Family Relations* 33, 317-327.
- 32) Folkman, S. & Lazarus, R.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33) Gilbert, L. & Holahan, C. (1982). Conflicts Between Student/ Professional, Parental, and Self-Development Roles: A Comparison of High and Low Effective Copers. *Human Relations* 35(8), 635-648.
- 34) Goode, W. (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483-496.
- 35) Guelzow, M., Bird, G. & Koball, E. (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51-164.
- 36) Haan, N. (1993). The Assessment of coping, Defense, and str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pp.258-273). N. Y.: Guilford Press.
- 37) Hall, D. (1972). A Model of Coping with role conflict: The Role Behavior of College Educated Wome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471-485.
- 38)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39) Marks, S. R.(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dec.), 921-936.
- 40) McCubbin, H., Joy, C., Cauble, A., Comeau, J., Patterson J. & Needle, R.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55-871.
- 41) McCubbin, H. & J. Patterson.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 7-38.
- 42) McDermid, S., Williams, M., Marks, S. & Heilbrun, G., (1994). Is Small Beautiful?-Work Family Tension, Work Conditions and Organizational Size. *Family Relations* 43(2), 159-167.
- 43) Mortimer, J. & London, J. (1984). The Varying Linkages of Work and Family. In P. Voydanoff (ed.), *Work & Family*. (pp.20-42). Palo Alto, CA: Mayfield Publishing Co.
- 44) Moos, R. & Schaefer, J.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pp.234-257). N. Y. :Guilford Press.
- 45) O'Neal, R. & Greenberger, E. (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101-111.
- 46) Parkes, K.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77-1292.
- 47) Pea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48) Perry-Jenkins, M. & Folk, K. (1994). Class, Couples and Conflict :Effects of the Division of Labor on Assessment of Marriage in Dual Earner Famil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165-180.
- 49) Schnittger, M. & Bird, G. (1990). Coping Among Dual-Care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Family Relations* 39(2), 199-205.
- 50) Sears, H. & Galambos, N. (1992). Women's Work Conditions and Marital Adjustment in Two-Earner Couples: A Structural Mode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89-797.
- 51) Shuster, C. (1993). Employed First-Time Mothers:

- A Typology of Maternal Responses to Integrating Parenting and Employment. *Family Relations* 42(1), 13-20.
- 52) Skinner, D. & McCubbin, H. (1982). Coping in Dual-Employed Families: Spousal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Washington, D.C.
- 53) Small, S. & Riley, D.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61.
- 54) Vannoy, D. & Philliber, W. (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87-398.
- 55) Voydanoff, P. (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749-761.